

2017 봄호 | vol. 33

One-Body One-Spirit Magazine Spring

아이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나눔의 유산



한마음한몸

기획특집

- 3 아이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나눔의 유산

한마음한몸 리포트

- 7 2017년 국제개발협력사업, 이렇게 지원합니다

현장 속으로

- 10 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 8주기 생명나눔캠페인
12 띠얏누리, 그리고 나에게 남은 다섯 단어
14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 16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 17 아이들의 미래를 변화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눔가게·나눔기업

- 18 다 담아서 더 나누는 가게

20 생애첫기부 & 기념일기부
22 한마음한몸 새 소식



커버스토리

“많이 닮았죠?” 조혈모세포 기증을 실천한 최우중 하사(우)와 그의 아들이자 생애첫기부의 주인공인 최준우 군(좌). 외모도,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도 많이 닮았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설립하시고 초대 이사장을 지내셨던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1989년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생명존중과 나눔실천이라는 대회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헌혈, 헌안운동을 벌이며 교회와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현재까지 국내를 비롯한 지구촌 50여 개국을 대상으로 나눔운동과 생명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한마음한몸은 홈페이지(www.obo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 © 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통권 33호 | 2017년 봄호

발행인 유경춘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발행일 2017년 봄

편집·디자인 슬로워크

주소변경 및 문의 후원관리팀

T 02)727-2288

E obos@catholic.or.kr

 www.obos.or.kr

 facebook.com/oboscorea

 onebody_onespirit

기획특집

아이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나눔의 유산

최우중 바르톨로메오 님과 그의 가족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나눔에도 적용됩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나눔 교육은 어떤 것보다 강력한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할 최우중 바르톨로메오 님의 나눔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최우중 하사로 더 익숙한 오늘의 주인공은 대구에 위치한 제11전투비행단에서 엔진정비를 담당하는 직업군인입니다. 아직 제법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날, 부대 면회실에서 최우중 님을 만났습니다.



발렌타인데이의 특별한 선물, 조혈모세포 기증

① 조혈모세포의 일치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형제자매간에 HLA가 맞을 확률은 약 25%이며, 타인과 일치할 확률은 약 2만 명 중의 1명 정도로 HLA가 일치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HLA: Human Leukocyte Antigen
조직적합성항원으로 사람 염색체의 6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② 기증하는 동안 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2조 2항)에 의해 조혈모세포 기증 기간 동안 공무원은 병가 처리하고 일반 근로자는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우중님은 지난 2017년 2월 14일에 조혈모세포 기증을 완료했습니다. 2015년 겨울, 가톨릭 생활성가 대회를 보러 간 길에 우연히 기증희망 등록을 한 그가 이듬해 10월에 받은 전화 한 통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조혈모세포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직도 기증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그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맞는 사람이 저 뿐인가요? ① 혹시 기증받을 사람이 누군지 몰어봐도 될까요?”

“저 외에 맞는 다른 한 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기증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증받을 아이는 열 살 정도 된 남자 아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지에 관한 설명까지 듣고 나니 제게 부담이 될 만한 과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도 흔쾌히 동의해줘서 바로 다음 날 하겠다고 했죠.”

이만큼의 조혈모세포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보다 더한 기적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는 멋쩍은 듯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별로 큰일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아프거나 힘들었으면 스스로도 큰일했구나 싶을텐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일주일간 휴가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잘 쉬다 왔다고 생각했어요.” ②

한 선배는 최우중님의 이야기를 듣고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는 사람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가능성이 많아지면 좋잖아요.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코디네이터를 통해 기증받은 아이와 엄마로부터 편지를 전해받기도 했습니다. 고마움을 가득 담아 꼭꼭 눌러 쓴 편지를 본 부부는 정성스러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나눔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 그의 조혈모세포 기증은 어떤 우연에 의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끝에는 신앙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믿는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머물렀던 요양병원에서 그의 어머니가 먼저 믿게 되면서 중학생이던 그도 자연스럽게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종교가 없으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스무 살 때, 스페인이 궁금해서 떠났던 산티아고길 성지순례는 그에게 신앙에

더 가까이 가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110km를 같이 걷는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신앙은 전에 약간 반감을 품었던 제게 새로운 자극이 됐어요. 기도를 하는 모습이나 나눔의 마음가짐이 배어 있는 부분들이 신실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산티아고에서의 여정을 마친 그는 이후 성당에서의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인 백슬아(유스티나)님을 알게 된 것도 바로 이 성지순례 덕분에이었습니다.



그 아빠에 그 아들

③ 생애첫기부는 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돕기의 두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내 백슬아 님과 아들 준우(사도요한)가 나타났습니다. 엄마아빠를 빼닮은 모습의 준우는 이따금 미소를 지으며 못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최우중 백슬아 부부는 지난 2016년 12월 5일, 결혼기념일이자 준우의 백일(12월 3일)을 기념하여 생애첫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소속의 교정사목위원회에서 직장생활을 했던 아내의 제안이었습니다. “준우의 백일행사를 간소하게 하고 절약되는 비용을 잘 모아서 준우 이름으로 기부하자고 했죠.” 준우의 기부금은 마침 아이 아빠의 조혈모세포 기증 이슈와 맞물려, ‘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돕기’ 분야에 후원하기로 정했습니다. ⑤

평소에도 나눔을 많이 하냐는 물음에 백슬아 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어머님도 그런 걸 아끼지 않으세요. 아마 가족, 특히 어머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나눔을 하는 것 같아요.”

나눔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건 최우중 님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휴가도 길고 VIP 병동에서 자볼 기회도 얻을 수 있다며 최우중 님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한 번은 준우 분유를 사러 남편과 함께 갔는데 남편이 분유값을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보통 분유보다 세 배 정도 비싼 산양유를 먹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도대체 왜 이걸 먹이냐고 당장 바꾸라고 했죠.(웃음)” 분유값은 아껴도 나눔에는 아낌없는 가족. 부부의 바람처럼 준우가 앞으로도 신앙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나눔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길 기도합니다. ㊸



“기증 자체를 되게 힘들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엄청 아프다던데, 힘들다던데’ 하면서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정말 힘들 게 없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국제개발협력사업, 이렇게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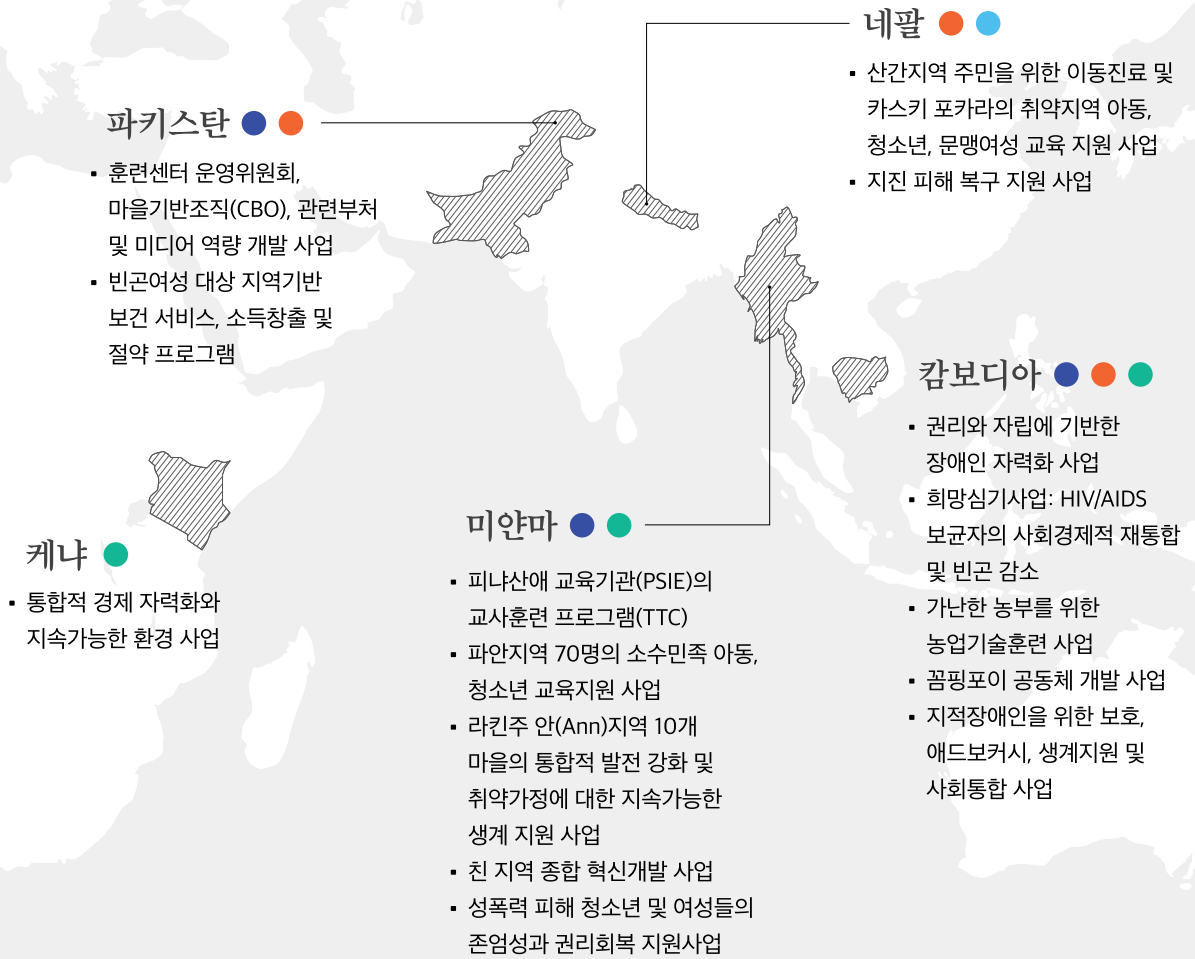


풍요의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믿기 어렵지만, 하루 1.25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8억3600만 명,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동의 숫자가 연간 5700만 명, 5세 미만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연간 6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부는 일회적 지원을 지양하며,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의 온전한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구조를 이룰 수

있게 도우면서, 되풀이되는 빈곤의 고리를 끊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크고 작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행복의 씨앗이 되어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해주시는 사랑으로 지구촌 곳곳의 가난한 이웃들이 꿈을 품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은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에게 커다란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



교육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육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어린이가 교육을 받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본부는 지역사회를 도와 학교나 교육시설, 기자재를 개선하고 교사 교육을 지원합니다.



보건의료

수백만 명의 사람이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쉽게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본부는 지역사회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현재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지원합니다.



지역개발/생계지원

빈곤은 단순히 굶주리는 상태를 넘어 필요한 만큼의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부는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영세 농부들이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이티 ●

- 허리케인 매슈 피해가구들의 생계회복 지원
- 뿌디부간 환경보호 및 재난예방 사업

에콰도르 ●

- 지진피해 복구 지원

볼리비아 ●

- JUAN CHOI 유치원 건축사업



인도적지원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부는 이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식량과 깨끗한 물, 보금자리와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또한, 최악의 상황이 진정되면 피해 주민들의 지역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장기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해외특별지원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규모 형태의 사업들 중 시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문의

국제협력팀
02)727-2265
www.obos.or.kr



현장 속으로

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 8주기 생명나눔캠페인

지난 2017년 2월 16일은 고(故)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선종하신 지 8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본부는 2009년 2월 선종 직후 각막기증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의 생명사랑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범국민 생명나눔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성모병원과 함께 하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 캠페인으로 1년간의 사랑나눔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은 2월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서울성모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병원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장기기증 상담을 받고 바로 희망등록 신청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선생님들과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선생님들도 함께 나오셔서 생명나눔캠페인을 도와주셨습니다. 병원 로비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오가며 문의도 하시면서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셨는데요. 특히 기증희망 신청자 중에는 환자 본인과 그 가족분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아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아내와 함께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을 한 남편

“각막 이식을 받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의 장기는 건강하니 나중에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주고 싶어요.”
각막 이식 수술을 앞둔 환자

이렇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각막 기증을 실천하시면서 몸소 보여준 모범이 생명나눔운동의 거룩한 씨앗이 되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3일간 진행된 장기기증 캠페인에서는 총 191명이 장기기증 서약을 해주셨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서약에도 15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2017년에도 사랑나눔의 유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장기기증은 선물로 받은 하느님 사랑을 꼭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고 떠나는 송고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또한,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써 고통 중의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8주기를 맞아 그분께서 신앙의 모범으로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생명나눔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

장기기증 희망신청 및 문의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
1599-3042(생명살이)
www.obos3042.or.kr



띠앗누리, 그리고 나에게 남은 다섯 단어



김지은 띠앗누리 22기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 띠앗누리 22기는 빈곤과 지역 공동체, 인권과 평화, 빈곤과 기후변화, 물을 주제로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지난 2/7(화)~2/21(화) 동안 캄보디아 깐땡꼬 마을과 반티프리업 장애인 기술학교에서 현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우리와 눈이 마주칠 때면 늘 웃어준 사람들을

미소

늦은 밤 도착한 반티프리업 '평화의 집'. 첫날의 잠자리는 어둡고 낯설었다. 새벽에 개가 짖는 소리마저 무섭게 느껴졌다. 하지만 어둠이 걷히고 아침을 맞이한 반티프리업은 '찬란함' 그 자체였다. 반티프리업 장애인들은 밝은 햇살처럼 우리와 눈이 마주칠 때면 늘 웃었다. 반티프리업 라운딩을 통해 만난 장애인들도 우리를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맑고도 강한 미소를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 헤아릴 순 없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장애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감사

지적장애인들이 빨래, 음식 만들기 등 아주 일상적인 작은 일부터 배우려는 모습에 '삶의 가치'는 그리 큰 것에 있지 않다고 느꼈다. 누군가는 어렵고 차근차근 배워가며 해내야 하는 것을 나는 이미 하고 있어서 그 소중함과 가치를 잊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현재의 나를 있게 한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

띠앗누리 22기

신부님 2명, 단원 13명, 스텝 2명. 우리는 17개의 띠앗으로 캄보디아에서의 시간을 만들어갔다. 모두 각자에게 알맞은 역할을 찾아갔으며, 그 자리에서 능력을 펼쳤다. 벽돌을 맞추면서 똑같은 벽돌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각기 다른 벽돌을 조금씩 맞추어나가면 반드시 맞아 떨어지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도 깨달았다. 심하게 모가 나서 못생긴, 쓸데없을 것 같아 버려둔 벽돌도 정사각형의 공간을 완성하는 데 쓰일 때의 기쁨이란. 이 벽돌처럼 우리도 각자 개성과 모습은 다르지만, 캄보디아 여정에 꼭 필요한 아름다운 벽돌 하나하나가 되었다. 까마득하게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의 길을 이뤄낸 것처럼, 우리 단원들 모두 각자의 길을 묵묵히, 기쁘게 만들어 나가길 기원해본다.



아이들

햇살이 짙짙하게 지면에 내리쬐기 시작한 낮, 감뽕고 마을에 도착했다. 수많은 아이들이 웃으며 우리를 맞이해주었다. 이때만 해도 나는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빨리, 쉽게 울컥하게 만들 줄 몰랐다. 아이들이 불러준 '사랑의 나눔'을 듣고 생각했다.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였나.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그 가사를 고스란히 보물상자에 담아두고 싶었다. 아이들과 함께한 10여 일의 시간. 문화교류를 함께한 꼬꼬마 유치원생부터 매번 도우미가 되어 준 초, 중학생 아이들까지. 낯선 우리를 잘 따라주고 잘 안기고 장난치는 모든 행동이 사랑스럽고 고마웠다. 돌이켜보니 눈에 아른거리는 존재들은 개구쟁이 꼬맹이들이지만, 끝내지 못한 숙제처럼 신경쓰이고 찝한 아이들은 감정의 깊이가 자랐을 초등학생, 중학생들이다. 편지지에 고이 적어 보내준 아이들의 마음에 어떻게 보답을 해주어야 할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사실 지금도 쉽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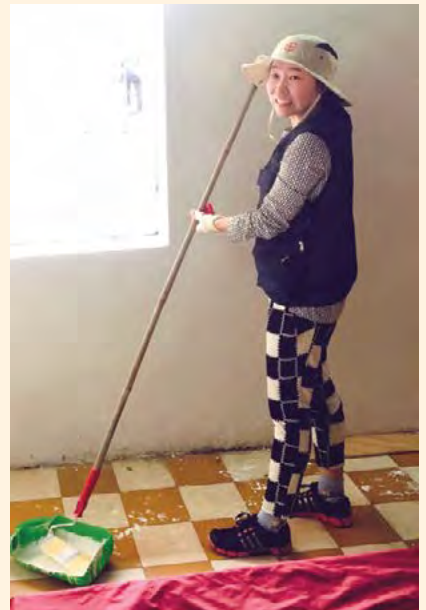


띠앗누리 단원들을 반겨주는 감뽕고 마을 아이들

각기 다른 벽돌이 서로 맞추어지듯 함께한 우리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요!



윙크

난생처음 해보는 반티프리업에서의 페인트 작업. 난 키도 작는데 하필 위쪽 벽면에 배치됐다. 미켈란젤로를 경험해보자는 심정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슬슬 오는 스트레스와 피로로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입을 꼭 다문 채 일만 했다. 내 한계를 깨달은 때야 비로소 내 아래, 옆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맏소새! 아래에서 나를 피해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던 남자 장애인과, 바닥에서 떨어진 페인트를 열심히 닦고 있던 여자 장애인을 보았다. 순간 미안한 마음에 그 여자 친구에게 윙크를 하니, 그녀도 바로 나와 똑같이 윙크를 해주었다. 한없이 미안하고 고마웠다.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어떻게?

자살은 너무도 크고 참담한 사회적 문제이지만, 그 배경이나 현장은 아주 개인적이고 일상적입니다. 따라서 자살위험군에 관한 지역사회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지난 2월 7일(화), 자살에 관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CS 생명존중 활동가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를 위해 7개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실무자, 그리고 CS(카리타스 서울) 생명존중활동가 5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종찬 실무자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저희 조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케어가 어려운 점에 관한 해결책으로 결국 지역사회 이웃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통/반장님들이 가가호호 신문을 꽃으시거든요. 이분들 통해 조기 발견이나 지지가 가능한 거죠. 그런 자원을 잘 연계해야 할 것 같아요.”



김옥환 활동가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사람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과대망상증이 있는 어떤 분은 한글을 재미있게 같이 배우시다가도 어느 날 공격을 해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죠. 사람의 특성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이나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현태 실무자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최근에 어시스트 교육을 받았는데, 막상 현장에서의 적용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한 사람당 하루에 만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 식사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회수되는 정도를 가지고 파악할 수밖에 없어 아쉽습니다.”



조용상(스테파노) 한국자살예방협회 어시스트 강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느낀 한계와 지역사회 안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개별적 상황에 따른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 교육이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실제로 어떻게 식별할지 ●자살위험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공동의 장으로 이끌어낼지 등 5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참가자들은 CS 생명존중 활동가 및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느꼈던 보람과 경험, 어려움 등을 나누고 앞으로 일상생활과 신앙 안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살 예방 활동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김달금 활동가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제가 담당하는 분이 자살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교육을 받았지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단순히 말벗 정도를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조용상 진행자 한국자살예방협회 어시스트 강사

“‘당신이 뭐라고 해도 죽을 거예요.’라는 말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과 관계형성이 안 되면 결코 중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중재의 맥락에는 협력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와주는 건데 그 사람이 도움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과연 중재가 효과적인 것인지 되물어야 합니다.”

“보통 자살 생각에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자살하는 이유 때문일 겁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죽진 않아’라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우리는 선불리 그런 생각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와 상관없이 자살 생각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살문제를 개인적인 혹은 정신영역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지역사회 및 사회적 문제로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월간 가톨릭 비타콘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직장에서 또는 소소한 일상에서 ‘성체성사의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 콘텐츠는 가톨릭 비타콘 2017년 3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 성체성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주인공은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자살위기 전화상담 봉사자 이은숙(가브리엘라) 님입니다. 심리치료사이자 자폐증전문치료사로 상담 전문가인 그녀에게 전화상담은 낯선 세계였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고 오직 목소리로만 상담을 주고받기에, 더욱이 죽고 싶다고 말하는 상담자를 상대하는 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제 실수로 자살을 더 부추기지는 않을까 지원하기 전 3년 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살은 그만큼 그 안에 숨어 있는 사연을 깊고 넓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두렵기에 더 하느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 이은숙 님. 그녀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한숨을 나눠오며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살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입니다.

“흔히 자살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직접적이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정말 자살하고 싶은 건가요?’”

그도 처음에는 ‘자살을 더 부추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살”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피상담자가 한발 물러서서 “죽고 싶다”고 했던 자신의 상황을 다시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화상담 봉사자로 활동하며 자살예방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상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살예방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약하게나마 본당과 교구에서 일하고 계시는 지인들에게 자살예방교육, 생명교육의 절실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조금의 여유만 있다면 자살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왜 힘든지 잠시만 시간을 내서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대부분 고립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배려, 따뜻한 말투, 웃음 등 사소한 것 하나로 자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은숙 님은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보다 가까운 타인의 불행을 막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의 불행을 막는 것이 곧 나의 행복, 공동체의 행복이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한 명이 자살하면 현실적으로 6~8명이 직접적인 심리적 영향을 받습니다. 간접적으로도 수많은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결국 한 사람의 불행이 사회의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 지체입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한 사람의 불행을 막는 것이 곧 나의 행복, 공동체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은숙 가브리엘라 씨. 그녀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생명을 주는 쪼개진 빵이 되도록 부름 받은,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

이은숙(가브리엘라)
자살위기 전화상담
봉사자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변화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얀마 희망꿈꾸미 프로젝트

2016-2017 연말연시 캠페인 '미얀마 희망꿈꾸미 프로젝트'가 지난 2월 말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미얀마 아이들을 가르칠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잘 지원하겠습니다.

기간 2016년 12월 18일 ~ 2017년 2년 28일

총 나눔인원 286명

총 나눔금액 115,591,409원

미얀마는 오랜 시간 군부 통치 아래에서 정치 불안을 겪으며
공교육 제도가 완전히 무너져 수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부는 지난 2008년부터 미얀마 양곤대교구와 협력해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후원금은 전액 '2017 미얀마 교사훈련
프로그램'에 지원되어 미얀마 현지 30여 명의 교육생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과정을 제공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또한, 교사훈련을 거쳐 현재 미얀마 전역에서
활동 중인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보재를
지급하여, 이들이 가르치는 1,600여 명의 아이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미얀마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노는
그 날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미얀마 양곤대교구 교사양성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교사들에게 감각통합교육을 받고있는 아이들



나눔가게·나눔기업

다 담아서 더 나누는 가게

이번에 소개할 나눔가게는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200호점 다담떡공방입니다.
떡을 찾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좋은 국산재료로 모든
떡을 매일 아침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하네요. 인터뷰를
위해 매장을 찾아 김창숙
글라라 대표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나눔가게·나눔기업 200호점

다담떡공방

대표 김창숙 글라라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5가 274-1

문의 02)928-1255

dadams.modoo.at



우선 가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북구 삼선동에 위치한 다담떡공방입니다. 맛과 정성을 “다담” 았다는 가게 이름처럼 매일 좋은 재료로 만든 건강한 떡과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백설기나 절편, 꿀떡부터 답례떡이나 세상에 하나뿐인 떡케이크 등 다양한 맞춤떡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떡은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젊었을 적 성당에서 떡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떡을 만들어 소외된 이들에게 전달하고 부활성야 만찬 때 보리떡을 만들어 신자들과 나누는 행사 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배우게 되었어요.

모든 떡을 매일 아침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재고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담떡공방의 모든 떡은 당일 만들어서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원칙을 고수하다보면 마감시간까지 남은 떡이 존재하게 마련인데요. 세일이나 묶음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간혹 사정이 어려워 떡을 좋아하셔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 지역 푸드뱅크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에서 떡을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해주셔서 맛있게 잘 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빵 한 조각도 나누려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떠올라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쪽

본부로 기부를 하고 계신데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마음한몸운동에 대해 어떤 계기로 알게 되셨나요?

김수환 추기경님 생전에 ‘나도 내 모든 신체 장기를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기증했다’고 신자들이 동참하기를 권유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본부 직원들이 이런 목적들을 알리기 위해 성당을 순례하신 적이 있었어요.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하셨는데, 그때 본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당시에도 주보를 통해 여러 가톨릭단체에 조금씩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톨릭 안에서도 종교와 이념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설립하시고 성체성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앙실천운동을 하고 있던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알게 되었고 저도 하루 100원 모으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나눔가게로 등록도 하시고 기부도 꾸준히 해주시고 계시는데 혹시 특별히 지원을 바라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본부가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나눔을 잘 전해주시고 있음을 알기에 특별한 후원분야 지정 없이 전체사업에 정기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실 다른

회원들에게도 한마디 해 주신다면?

자영업 하시는 많은 분들이 바쁘고 힘겨운 와중에도 이웃들과 나누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저 역시 판매자인 동시에 소비자로서 되도록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나눔가게·나눔기업들이 우리 이웃 안에서 행복을 전하는 창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수록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여러 나눔가게 회원님들 역시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즘이지만, 나눔가게·나눔기업들이 더 밝은 미소와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나눔가게· 나눔기업이란?



나눔가게·기업은 본부가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펼치는 특별기부 사업에 동참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본부에 예비 나눔가게·기업으로 등록한 뒤 1년 이상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나눔가게·기업으로 선정됩니다.

나눔가게·기업으로 선정되면 벽에 부착할 수 있는 나눔가게·기업 현판을 보내드리고 정기적으로 모아주신 기부금은 지구촌 빈곤 퇴치와 긴급구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와 자살예방사업 지원 등 본부의 다양한 생명·나눔 운동에 지원됩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1-166291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참여문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02)727-2263



생애첫기부 & 기념일기부

생애첫기부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아프리카·아시아의 빈곤한 친구들과 국내의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67

생애첫기부

강유빈 마카엘라 2016.02.09생 父 강광훈 母 이혜민 | **고은찬** 2015.12.03생 父 고동현 母 현경원 | **고주환 마카엘** 2014.03.28생 父 고종욱 母 김수현 | **곽도윤** 2015.07.16생 父 곽세건 母 정인검 | **곽민술** 2015.12.15생 父 곽승환 母 정해선 | **권서진 프란치스코** 2015.12.21생 父 권영준 母 윤진주 | **권우준** 2016.03.01생 父 권혁훈 母 정하늬 | **기성록 라파엘** 2016.09.19생 父 기석권 母 박주원 | **기예일 소피아** 2014.01.03생 父 기정환 母 유윤지 | **김대건 안드레아** 2016.02.06생 父 김도연 母 김재은 | **김동준** 2015.04.12생 父 김정호 母 전진 | **김동혁** 2004.09.18생 父 김성재 母 정지윤 | **김동현 다미아노** 2012.03.25생 父 김정호 母 전진 | **김리안** 2016.11.30생 父 김현홍 母 지연 | **김리호 루치아** 2016.01.01생 父 김호승 母 최유리 | **김민성** 2015.01.13생 父 김사육 母 김태은 | **김민재** 2016.02.16생 父 김창현 母 박승희 | **김민호** 2015.12.01생 父 김기백 母 권미주 | **김사랑 소피아** 2015.12.21생 父 김경원 母 나슬기 | **김서정** 2007.04.24생 父 김성재 母 정지윤 | **김세은** 2015.12.02생 父 김창현 母 성내리 | **김소은 레지나** 2015.09.25생 父 김영준 母 이영애 | **김승언 바오로** 2016.01.26생 父 김창우 母 임은지 | **김시울** 2016.02.02생 父 김진하 母 황은정 | **김시현** 2014.01.12생 父 김성훈 母 권경아 | **김사환 마카엘** 2015.04.28생 父 김원태 母 유희정 | **김아인** 2016.11.07생 父 김완봉 母 김소라 | **김연호** 2016.09.15생 父 김동현 母 김지선 | **김예언 라파엘라** 2015.11.02생 父 김진환 母 원혜정 | **김은송** 2017.01.08생 父 김명규 母 최인경 | **김웅준 마카엘** 2015.03.12생 父 김승식 母 박찬민 | **김이안 사도요한** 2015.10.05생 父 김재홍 母 황세영 | **김자인 안드레아** 2013.12.23생 父 김성진 母 김은도 | **김주환 다니엘** 2005.02.01생 父 김정현 母 안인성 | **김준 프란치스코** 2016.01.24생 父 김건 母 오주은 | **김지안 그라시아나** 2015.11.16생 父 김정훈 母 김보라 | **김지호** 2014.12.23생 父 김성규 母 김경서 | **김찬유 요셉** 2015.06.26생 父 김덕윤 母 신선 | **김재아 보나** 2016.02.19생 父 김지민 母 정소희 | **김재운** 2014.12.12생 父 김성훈 母 장은선 | **김태우 비오** 2016.08.21생 父 김성수 母 윤수정 | **김태윤** 2016.02.05생 父 김형석 母 김은정 | **김하경 마카엘라** 2016.03.02생 父 김한준 母 이재은 | **김하린 파우스티나** 2016.10.24생 父 김태형 母 김희정 | **남태준 라파엘** 2004.05.26생 父 남봉근 母 정서현 | **노채현 안젤라** 2015.01.27생 父 노현우 母 이미지 | **박강울** 2016.10.25생 父 박학현 母 정성 | **박서은 엘리사벳** 2016.02.28생 父 박성재 母 서자용 | **박설연** 2016.02.10생 父 박상혁 母 김영주 | **박시형 안나** 2016.02.07생 父 박민우 母 백일현 | **박정연 클라라** 2016.08.05생 父 박건형 母 박현선 | **박재욱 니콜라오** 2013.12.19생 父 박상혁 母 김미남 | **박지서** 2015.12.10생 父 박승배 母 오지창 | **박지안** 2016.02.05생 父 박진우 母 김가란 | **박재환 바오로** 2012.08.27생 父 박종만 母 이은미 | **박효담** 2015.02.14생 父 박대원 母 송지원 | **복영이(태영)** 父 정찬민 母 김수정 | **서유찬** 2016.11.18생 父 서민용 母 이지영 | **서이아 아아** 2016.02.05생 父 서태인 母 박민희 | **선예준** 2016.11.09생 父 선운업 母 김수진 | **손민우 베네딕토** 2013.04.17생 父 손수원 母 손혜숙 | **손석연 라파엘** 2012.12.14생 父 손형기 母 조은희 | **손해림 가브리엘라** 2008.04.17생 父 손형기 母 조은희 | **손해인 마카엘라** 2008.04.17생 父 손형기 母 조은희 | **송민하** 2015.12.03생 父 송대식 母 최지영 | **송이수** 2016.02.26생 父 송인상 母 김보람 | **송준영 예로니모** 2009.09.23생 父 송경훈 母 박상희 | **신윤준 안드레아** 2016.02.12생 父 신호곤 母 김지영 | **심설** 2016.10.20생 父 심현보 母 김지은 | **안재윤** 2016.02.16생 父 안현철 母 신지혜 | **엄지형** 2015.12.01생 父 엄진국 母 박은진 | **유소은** 2015.12.24생 父 유희명 母 조희진 | **유수아 벨라렛타** 2013.11.08생 父 유병관 母 김주연 | **유재현** 2016.01.31생 父 유병욱 母 전병욱 | **윤가람** 2016.01.26생 父 윤사라 母 강유진 | **윤이진 루치아** 2014.12.13생 父 윤오상 母 이주희 | **윤지안 마리스텔라** 2016.02.11생 父 윤필상 母 노재민 | **윤지한** 2016.02.23생 父 윤기영 母 최혜영 | **이가원** 2015.12.08생 父 이신복 母 이경원 | **이루희** 2015.11.25생 父 이형구 母 석가영 | **이민서 마리스텔라** 2016.01.21생 父 이준호 母 정경화 | **이범석 루카** 2003.11.21생 父 이양무 母 김이정 | **이서하 소피아** 2014.02.05생 父 이두하 母 정선애 | **이세한 프란치스코** 2014.03.04생 父 이상준 母 천명희 | **이소은** 2015.09.27생 父 이원석 母 김미라 | **이승원 라파엘** 2015.05.12생 父 이호준 母 전지혜 | **이시윤** 2016.01.29생 父 이대희 母 박은선 | **이영경 로셀리나** 2007.01.17생 父 이상훈 母 이영순 | **이유근 다니엘** 2013.03.20생 父 이혜중 母 이진경 | **이유림 페르페투아** 2016.03.01생 父 이윤준 母 변민영 | **이윤솔** 2016.01.29생 父 이대희 母 박은선 | **이윤아 빅토리아** 2013.12.23생 父 이화섭 母 이혜진 | **이윤인 라파엘라** 2015.12.02생 父 이준 母 김수연 | **이윤찬** 2016.09.23생 父 이병화 母 정주미 | **이정원** 2016.09.14생 父 이성은 母 박혜윤 | **이정호** 2016.02.04생 父 이재훈 母 황진주 | **이재아** 2016.01.16생 父 이한규 母 박진영 | **이진성** 2016.02.15생 父 이석형 母 진혜영 | **이태범 사도요한** 2015.07.29생 父 이종섭 母 이정민 | **이태인 노엘라** 2015.12.16생 父 이태영 母 고명희 | **이혜나 노엘라** 2016.01.06생 父 이남근 母 최윤아 | **임가은 요셉피나** 2016.10.27생 父 임정환 母 김진희 | **임도현** 2016.01.05생 父 임성민 母 윤혜선 | **임지운** 2014.01.11생 父 임영재 母 신유정 | **장준영** 2015.12.17생 父 장보길 母 정혜원 | **전아인** 2016.01.04생 父 전준호 母 이지희 | **전하린** 2016.02.16생 父 전주용 母 이선영 | **전하연 베네딕다** 2016.01.11생 父 전석호 母 전영은 | **정서영** 2006.08.03생 父 정현구 母 변호정 | **정세윤** 2016.10.01생 父 정창식 母 김지애 | **정지오** 2016.01.22생 父 정찬관 母 채보애 | **정지오 라벤시오** 2016.01.04생 父 정문연 母 남수연 | **조연수** 2016.04.26생 父 조성호 母 정미미 | **조영우 노엘** 2015.12.17생 父 조지현 母 양혜미 | **조유빈 에일리아** 2015.08.02생 父 조지훈 母 이수경 | **조재하 라파엘** 2015.11.19생 父 조현상 母 김유영 | **최송민 라파엘라** 2016.01.20생 父 최정환 母 홍수경 | **최우진 라파엘** 2015.12.28생 父 최병주 母 이정은 | **최윤서** 2016.10.22생 父 최현중 母 조혜원 | **최효우 프란치스코** 2016.01.03생 父 최보용 母 정미림 | **최은호** 2016.02.12생 父 최익현 母 박미란 | **최주안 레오** 2016.11.22생 父 최영민 母 김연주 | **최준서** 2016.01.26생 父 최효선 母 정소연 | **최지아 스텔라** 2016.01.04생 父 최인규 母 김안나 | **최지호** 2016.04.06생 父 최원 母 이서진 | **최진유 바오로** 2016.02.09생 父 최승일 母 황효진 | **최평화(태영)** 父 최영현 母 김진경 | **한도경** 2016.06.19생 父 한동희 母 이정은 | **한지유** 2016.01.18생 父 한용기 母 이인경 | **허연우 헬리나** 2016.02.11생 父 허충남 母 이혜미 | **허윤지 스텔라** 2012.05.07생 父 허만영 母 권현미 | **허지수 엘라** 2016.09.20생 父 허만영 母 권현미 | **홍세빈** 2016.03.17생 父 홍영준 母 박수경 | **홍소윤** 2016.02.26생 父 홍유석 母 장현주 | **홍준서 라파엘** 2015.02.07생 父 홍석경 母 김지선 | **황선우** 2015.01.23생 父 황대용 母 오수민 | **황성하 요셉** 2016.03.05생 父 황재인 母 권유경

두 번째 기부

강서준 니콜라오 2014.12.20생 父 강동욱 母 김민경 | **구자준** 2015.01.12생 父 구동희 母 박민지 | **권도윤 임마누엘** 2015.04.05생 父 권오준 母 임민정 | **권희진 글라라** 2010.07.24생 父 권득진 母 안정현 | **김규담 라파엘** 2015.02.13생 父 김재복 母 편수아 | **김규민 헬리나** 2012.10.25생 父 김재복 母 편수아 | **김민석 가브리엘** 2012.12.27생 父 김성훈 母 정효주 | **김민진 가브리엘라** 2008.12.15생 父 김성훈 母 정효주 | **김서은 라파엘라** 2016.01.02생 父 김효상 母 이주영 | **김서준** 2015.01.09생 父 김민한 母 류주영 | **김서한** 2014.05.15생 父 김운학 母 문은혜 | **김사우** 2013.01.08생 父 김종보 母 백소현 | **김은총** 2015.02.24생 父 김명규 母 최인경 | **김주원 프란치스코** 2014.02.18생 父 김기홍 母 박수영 | **김지아** 2015.04.20생 父 김진구 母 김정은 | **김지안** 2014.12.11생 父 김준호 母 정민경 | **노건우 예로니모** 2006.09.12생 父 노성수 母 김리나 | **노이진 마리아** 2015.02.17생 父 노상범 母 소소희 | **박서영** 2015.02.26생 父 박재훈 母 조민정 | **박서진 프란치스코** 2015.01.08생 父 박보현 母 서지은 | **박승온 소피아** 2011.04.19생 父 박건형 母 박현선 | **박수현** 2015.12.02생 父 박동현 母 정미영 | **박주원 에바** 2012.09.18생 父 박성호 母 이경희 | **박준후** 2015.02.24생 父 박진우 母 박지은 | **박재원 에스텔** 2015.02.16생 父 박성호 母 이경희 | **백찬열 바오로** 2015.01.31생 父 백재원 母 광미경 | **손가은 보나파스** 2016.02.10생 父 손승환 母 김보경 | **송다니엘 다니엘** 2016.03.05생 父 송승희 母 오미카엘라 | **우상윤** 2016.01.10생 父 우도희 母 정승아 | **우서연 보나** 2010.01.05생 父 우기철 母 김형진 | **유서진 요한** 2014.10.28생 父 유준영 母 홍혜경 | **유정우 베드로** 2013.02.27생 父 유재형 母 배효진 | **유현서 에데니라** 2015.01.16생 父 유도원 母 이주인 | **윤민성 루카** 2015.02.07생 父 윤영상 母 안수미 | **이다빈** 2014.12.16생 父 이경수 母 전영민 | **이다현 바실리사** 2016.01.09생 父 이준영 母 윤나리 | **이레나 엘리사벳** 2015.10.20생 父 강동진 母 이경은 | **이루림 벨라렛타** 2016.02.13생 父 이석영 母 김혜린 | **이상우** 2016.01.01생 父 이강혁 母 장근영 | **이시윤** 2012.11.07생 父 이광재 母 정지현 | **이예령** 2016.01.10생 父 이동환 母 김



황성하 요셉



김태극 요셉



윤정훈 안셀모



김리우 올리ানা

은정 | **이예준 다니엘** 2015.02.21생 | **이규행** | **김윤희** | **이우한** 2010.11.24생 | **이동희** | **정선화** | **이유나** 2014.12.08생 | **이동혁** | **전수진** | **이재훈 베네딕도** 2016.01.20생 | **이윤희** | **마하림** | **이주원** 2016.04.08생 | **이상훈** | **미민선** | **이주혁 노엘** 2014.12.20생 | **이상호** | **윤주희** | **이준상** 2014.12.11생 | **이윤동** | **김새롬** | **이지윤** 2010.10.11생 | **이광재** | **정지현** | **전승민 루도비코** 2016.01.10생 | **전진용** | **유수민** | **정희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2015.03.23생 | **정다운** | **이승은** | **조아인 엘리야** 2015.01.24생 | **조우철** | **이세리** | **조한나** 2015.10.18생 | **조취준** | **문진정현** | **최라엘** 2014.12.23생 | **최종혁** | **김효진** | **최밤을** 2013.12.16생 | **최생기** | **김경자** | **최서현** 2015.01.01생 | **최환영** | **공영수** | **한시윤 로사리아** 2011.10.07생 | **한준석** | **고은옥** | **허민슬 엘리사벳** 2014.01.05생 | **허남현** | **김보령** | **홍승기 사도요한** 2016.02.20생 | **홍성민** | **이병조**

세 번째 기부

김리우 올리ানা 2011.02.16생 | **김현수** | **문세정** | **김민서** 2015.02.23생 | **김광익** | **문김주원** | **김민재 루피나** 2013.07.10생 | **김호진** | **안정민** | **김지은 라파엘라** 2014.03.03생 | **김현승** | **김도연** | **김지우 율리아** 2015.05.22생 | **김정현** | **문정혜진** | **김태극 요셉** 2014.03.01생 | **김준혁** | **문수영** | **남경빈** 2006.02.15생 | **남영욱** | **문황수연** | **박대림 다미안** 2015.08.10생 | **박정훈** | **문최형민** | **서하을 프란치스코** 2013.03.14생 | **서지훈** | **문김수연** | **송이재 테오도로** 2013.12.22생 | **문송진우** | **문유지애** | **안서영 안젤라** 2014.01.27생 | **문안재성** | **문이유은** | **이민진 토마스 아퀴나스** 2009.01.28생 | **문이재관** | **문영미경** | **이주원 레오** 2013.07.14생 | **문이태영** | **문고명희** | **이준희** 2013.12.15생 | **문이병한** | **문임수현** | **이지우 로사리아** 2015.03.04생 | **문이동훈** | **문오은성** | **이지호 릴리안** 2012.09.06생 | **문이종섭** | **문이정민** | **정연우** 2014.01.21생 | **문정유석** | **문신경하** | **정연우 켈마** 2012.01.28생 | **문정재광** | **문홍지숙** | **정이현** 2013.11.25생 | **문정진석** | **문이민화** | **조원재 토마스 아퀴나스** 2014.02.25생 | **문조장호** | **문이세라** | **최맑음** 2011.11.07생 | **문최생기** | **문김경자** | **최하을 베로니카** 2016.01.18생 | **문최충범** | **문진승희**

네 번째 기부

강건우 2013.01.11생 | **문강성민** | **문김고운** | **강사우** 2013.01.11생 | **문강성민** | **문김고운** | **고서연** 2009.08.18생 | **문고동신** | **문김현미** | **기민우 요한** 2006.12.17생 | **문기석권** | **문박주원** | **김진호 에드워드** 2015.12.12생 | **문김정민** | **문손영지** | **김태근 비오** 2014.01.06생 | **문김진** | **문이재형** | **김해은 세레자 요한** 2013.01.21생 | **문김경은** | **문박은선** | **박서준 마르셀리노** 2005.04.28생 | **문박광진** | **문박봉정** | **박수빈 클라우디아** 2012.11.01생 | **문박해운** | **문김지연** | **박정현 켈트루다** 2014.01.20생 | **문박진홍** | **문이소현** | **박준현 디모테오** 2012.01.31생 | **문박종연** | **문김정은** | **오은수 마리스텔라** 2013.12.29생 | **문오재필** | **문김현영** | **이도현 대건 안드레아** 2012.07.05생 | **문조미** | **문백준승** | **이아람** 2016.01.19생 | **문이종수** | **문박우정** | **이요한 요한** 2013.10.23생 | **문조미** | **문백준승** | **이재원 에스텔** 2014.02.17생 | **문이진호** | **문정희경** | **장민서 소피아** 2013.09.09생 | **문장성용** | **문오경숙** | **장지훈** 2013.03.21생 | **문장현석** | **문정효빈** | **정가현 소피아** 2012.01.13생 | **문정규진** | **문이민성** | **정하준 미카엘** 2013.04.10생 | **문정용욱** | **문안명은** | **조민재 미카엘** 2013.01.04생 | **문조준일** | **문진민경** | **조서후 바오로** 2012.11.27생 | **문조낙기** | **문조선미** | **지서윤** 2013.02.11생 | **문지대현** | **문이기랑** | **최을 마리스텔라** 2013.03.13생 | **문최지완** | **문김희원** | **허상범 루카** 2014.01.11생 | **문허대영** | **문김정숙** | **홍유준** 2016.02.05생 | **문홍상기** | **문나수현** | **홍준기 야고보** 2012.01.13생 | **문홍성철** | **문변정연**

다섯 번째 기부

구민주 그라시아 2007.11.09생 | **문구성관** | **문박혜은** | **기정훈 그레고리오** 2010.01.02생 | **문기석권** | **문박주원** | **김지우 도미니코** 2011.08.31생 | **문장양원** | **김지희 글라라** 2012.02.15생 | **문김익균** | **문김지영** | **문윤림 크리스티나** 2012.02.09생 | **문문현기** | **문박규린** | **민세윤** 2012.02.13생 | **문민정재** | **문이선영** | **박소원** 2012.03.05생 | **문박진우** | **문박지은** | **박지연 안나** 2008.08.06생 | **문박광진** | **문박봉정** | **오승우** 2012.02.15생 | **문오세훈** | **문송지혜** | **유건민** 2010.02.25생 | **문유형석** | **문이지원** | **유효린 마리아피아** 2012.01.30생 | **문유태근** | **문박소정** | **이신혁** 2010.12.21생 | **문이현규** | **문구혜경** | **이아람** 2016.01.19생 | **문이종수** | **문박우정** | **이지후** 2012.01.31생 | **문이준수** | **문김혜진** | **임지우 아네스** 2012.01.31생 | **문임경권** | **문이정선** | **임지호 발렌티노** 2008.02.13생 | **문임성익** | **문김미리** | **정하을** 2012.10.15생 | **문정훈** | **문최민영** | **최지연 안나** 2012.01.29생 | **문최상규** | **문이승은**

여섯 번째 기부

고민을 2015.06.11생 | **문고영미** | **권경현 안드레아** 2011.04.19생 | **문권오준** | **문임민정** | **권나윤 데레사** 2011.12.15생 | **문권광호** | **문김선영** | **기민우 요한** 2006.12.17생 | **문기석권** | **문박주원** | **김동륜 안토니오** 2011.01.17생 | **문김현숙** | **문한주희** | **장준하 니콜라스** 2007.12.27생 | **문장성용** | **문오경숙** | **장현서 카트린** 2010.06.09생 | **문장성용** | **문오경숙** | **정성하 요셉** 2011.03.09생 | **문정용은** | **문김애리** | **정희원 돈보스코** 2010.11.22생 | **문정다운** | **문이승은** | **조서현 베드로** 2010.06.19생 | **문조낙기** | **문조선미** | **최다인 로사** 2010.03.06생 | **문최상규** | **문이승은**

일곱 번째 기부

박성빈 2010.02.10생 | **문박동현** | **문정미영** | **윤정훈 안셀모** 2011.02.08생 | **문윤용덕** | **문제민영** | **이슬아 캐서린** 2010.12.10생 | **문이병동** | **문김혜원**

여덟 번째 기부

이슬아 캐서린 2010.12.10생 | **문이병동** | **문김혜원** | **정성하 스테파노** 2008.12.25생 | **문정찬호** | **문조은모**

열두 번째 기부

이승윤 콘스탄티노 2014.04.12생 | **문이종수** | **문박우정**

멋진 팬들의 기부

비투비 데뷔5주년기념 | **비투비 임현식** 생일기념 | **서현진** 생일기념 | **신화** 데뷔19주년기념

감사 기부

김석 예로니모 | **반촌동기모임** | **유재형 알폰소** 새로운 출발 | **최종원** 과외 마지막날을 기념하며

축일기부

신동우 안토니오 | **윤선영 릴리안**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강정수 바오로 & 유정 레지나 결혼10주년 | **고재인 시몬 & 김양희 세실리아** 결혼13주년 | **김영현 & 박정선 빅토리아** 결혼3주년 | **이태우 이나시오 & 최옥 마르타** 결혼23주년 | **최진일 베다&관선희 요안나** 결혼13주년 | **한운상 힐라리오 & 김은하 안나** 결혼40주년

아홉 번째 기부

김지원 루카 2014.09.20생 | **문김성락** | **문박민정**

열 번째 기부

김지원 루카 2014.09.20생 | **문김성락** | **문박민정**

아름다운 커플의 기부

김인우 노엘&진려원 카타리나 | **허선호 파비아노&강새별 카타리나**

고인을 기억하며

故 김경수 | **故 김성민 카타리나** | **故 김현희 아나톨** | **故 김희창** | **故 두경자 베르나데타** | **故 최현우 사도요한**

크리스마스 기념 기부

신은정 안젤라 1979.02.18생

입학 기부

한우선 프리스카

생일 기부

김은주 1981.01.24생 | **박현선 안젤라** 1974.11.04생 | **송하정** 1985.12.27생 | **여복구 바오로** | **오윤경 아네스** 1975.01.28생 | **이여주 베로니카** 1979.01.23생 | **이진호 스테파노** 1981.01.29생 | **정도준 가브리엘** 1993.10.20생 | **천희용 도마** 1946.11.23생 | **최원진 카타리나** 1988.01.06생

한마음한몸 새 소식

1 캄보디아 현장방문



지난 1월 13일(금)~25일(수)까지, 캄보디아의 사업 현황을 방문하여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지기관 담당자들과 만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부는 특히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민간단체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반티프리업(Banteay Prieb) 사업장을 현지에서 운영하는 JSC(Jesuit Service Cambodia)와 협력하여 캄보디아 내 장애인들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빈곤을 없애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여 지구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 8주기 생명나눔캠페인

지난 2월 14일(화)~16일(목),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한 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8주기를 맞아 서울성모병원과 함께 생명나눔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보기 ▶ p.10

3 자살예방활동가 보수교육 시행



지난 1월 25일(수), 자살예방센터에서 교육을 수료한 자살예방활동가 60명을 대상으로 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기이해·발달을 활용한 자살위기 상담에의 적용(강사: 명화숙, 대전대 상담대학원 객원교수)”이라는 주제로 보수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 참여자들은 “자살 위기자들의 심리적 위기를 이해하고, 위기자들을 만났을 때 올바른 대처능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센터는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하여 활동가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4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파견



전 지구적 공동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실천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본부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와 함께 월드프렌즈 NGO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김영민, 최규리 단원이 캄보디아 JSC(Jesuit Service Cambodia)에, 한주선 수녀가 가나 성요셉클리닉에 파견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단원들이 타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과의 교류 안에서 배움을 얻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5 가톨릭장기기증전국네트워크, 사순시기 생명나눔 캠페인



본부는 가톨릭장기기증전국네트워크를 통해 사순시기부터 범국민 생명나눔 캠페인을 연중 전개할 수 있도록 전국 본당에 캠페인 포스터와 장기기증 안내서를 배포하였습니다. 한편 본부는 수원교구 생명위원회와 함께 사순시기 주말마다 교구 내 전 본당 신자들을 대상으로 헌혈·장기기증 캠페인을 전개하여 어려운 형제자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6 지구시민교육프로그램 띠앗누리 22기



띠앗누리 22기가 지난 2월 23일(목) 해단식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띠앗누리 22기는 빈곤, 인권과 평화, 환경, 지역공동체를 주제로 4차례의 배움터를 거쳐 2월 7일(화)부터 14박 15일간 캄보디아 캄봉고 마을에서 현지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귀국 후인 2월 23일(목)에는 배움터 시간에 다룬 주제인 ‘물’에 관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앞으로도 지구시민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였습니다.

더 보기 ▶ p.12

7 ASIST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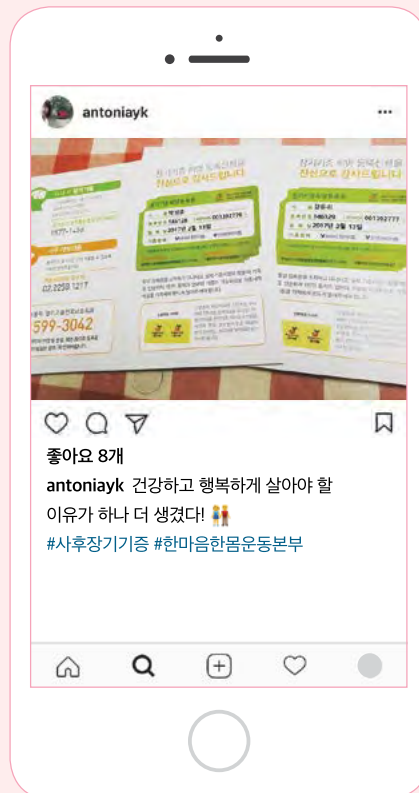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자살예방전문가과정 [ASIST 교육]이 1월 12일(목)~13일(금)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ASIST 교육]은 자살위기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안전계획을 세워 즉각적으로 위험을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해 훈련하는 교육과정으로, 교육생 26명이 참여하여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8 환우지원사업 빠른 채용을 바랍니다

2017. 1~3. | 단위: 만 원

구분	성명	병명	병원	진료비
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돌기사업	시OOOO	무공성항문	서울대병원	1,000
	권OO	간세포암종	국립암센터	410
	손OO	급성골수성백혈병	서울대병원	1,000
	레O	범복막염 외	인하대병원	1,000
	이OO	초극단저체중아, 미국아	아주대학병원	1,000
	이OO	뇌종양	화산전남대학병원	1,000
	이OOO	발달지연	부천성모병원	900
	이OO	폐혈증의증 외	인하대병원	300
	최OO	뇌성마비, 기관지확장증	서울대병원	700
	방OO	말기신질환, 신장이식상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400
장기이식대기자 지원사업	안OO	간 이식	기독병원	900
	신OO	백혈병	한림대학교성심병원	1,000
	한OO	백혈병	국립암센터	900
긴급지원사업	김OO	폐암	국립암센터	1,000
	전OO	만성치주염, 치아상실, 체장애	부천성모병원	680
	이OO	뇌교모세포종(뇌종양)	국립암센터	1,000

| SNS로 보는 나눔 이야기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후원안내

① 정기후원

지로자동이체(권장)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
(www.obos.or.kr)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소식지에 동봉된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본부로
보내주시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월 1회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지로납부

지로번호: 7522277
지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지로납부 횟수를 격월,
분기, 상하반기 등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일시후원

계좌이체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우리은행 454-005324-13-001
국민은행 083-01-0309-453
신한은행 140-001-982286
KEB하나은행 061-22-03709-4
농협 386-01-015833

신용카드, 휴대폰

www.obos.or.kr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후원할 수 있습니다.

ARS 후원

060-700-1117
위 ARS 번호로 전화하시면 한 통화당
3,000원이 사용하시는 전화요금에서
결제됩니다.

문의 02)727-2285 | 02)727-2288

보내주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